

“南-北-日 평화벨트 구축 평생의 꿈”

일본 벤처기업가 고마스 씨

시네마현-독도-금강산 연결
동북아 평화기여 대승적 차원
독도에 평화의 탑 건립 소망

“제가 남북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이웃한 나라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경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제 노력이 동북아 평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 시네마현의 벤처기업가 고마스 야키오(59·고마스전기산업 대표)씨가 최근 시네마현과 독도·속초·금강산을 잇는 ‘녹색평화벨트’ 구축을 위해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을 찾아 프로젝트 구축 의지를 다졌다. 지난 97년 독립기념관을 방문, 한·일친선을 위한 비용으로 씨달라며 100만엔을 기부한데 이어 이듬해 대한적십자사에 대북지원금 500만엔을 기부했다. 이후 매년 고마스전기 사원 연수생 한국에서 시켜오기도 했다.

“김구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평화주의자임



니다. 시네마현은 독도와 속초를 직선으로 잇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한국과 일본이 이웃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평화와 인권교육이 미흡한데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다. 독도에 평화의 탑을 건립하고 제가 사는 시네마현과 속초에 친한경직이고 평화지향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평생의 꿈입니다.”

고마스씨의 이같은 생각은 시네마현에 ‘전쟁역사기념관’ 건립을 시작한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안중근 김구 등 일제에 항거했던 인물의 기념관을 찾아 현화하는 의지도 평화운동의 한 맥락. 그는 백범기념관에 이어 중국 난징으로 건너가 난징학살의 현장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역사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25년 전 사업차 한국에 왔을 때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택시기사에게 수모를 당했어요.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긴다 싶어서 독립기념관을 찾아 불행한 역사를 배우려했지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단 한줄의 일본어 귀퉁이도 없는 겁니다. 당시 박유철 관장에게 간곡히 부탁해 적은 금액을 기부하고 한·일 우호를 위해 씨달라고 했지요.”

그는 “우리 직원들은 독립기념관, 백범기념관 방문 등으로 짜여진 한국 연수생 다녀오면 한국마니아가 된다”며 “내가 못하면 후대가 ‘녹색평화벨트’ 프로젝트를 이어갈 것”이라며 평화의 사절로서의 각오를 밝혔다.

전정희기자 jhjeon@kmlb.co.kr